

‘대학 5학년’ ... 졸업유예 학생 늘어

올해 601명 대상... 5년 사이 42% 증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졸업유보·연기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졸업을 반기지 않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아예 졸업을 미루는 수업연한초과자가 늘고 있다.

수업연한초과자는 9학기(건축학부의 경우 11학기) 이상 재학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졸업필요이수학점이 충족되지 않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면 수업연한초과자로 등록된다.

2008년 421명이었던 수업연한초과자가 2009년 485명, 2010년 505명, 2011년 548명, 올해 601명을 기록해 지난 5년 사이 42%가 증가했다.

수업연한초과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졸업유예를 하는 원인으로선 인턴십,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의 학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학생 신분에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을 할 때 졸업예정인 학

생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수업연한초과자가 증가하는데 한몫한다. 아울러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주변의 눈치도 보게 돼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졸업필요이수학점이 충족되지 않거나 중앙자치기구 학생회 혹은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을 하게 되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등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졸업생은 줄고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은 많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졸업유예신청을 한 학생은 총 163명으로 집계돼 수업연한초과자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수료자들도 지난 4월 기준 212명이다. 기수료자는 졸업필요이수학점이 충족되지만 전산자격증이 없어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말한다.

수업연한초과자가 많아지면 학교



한 학생이 취업전략본부 앞에 있는 취업정보게시판을 보고 있다.

재정은 오히려 증가한다. 신청 학점에 따라 1/6 수준, 1/3 수준, 1/2 수준, 전액 등으로 분류돼 등록금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연한초과자가 늘면서 재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도 있다. 수업연한초과 학생들이 이 러닝을 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수강신청하는데 있어 재학생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크게 없다. 하지만 인턴십 등

재학생에 한정된 프로그램에 졸업유예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률이 더욱 치솟고 있는 것이다.

신화진(학사과) 실무관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업연한초과자와 휴학생이 늘어 바로 졸업하지 않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졸업 후의 취업 등 어려운 점이 많아 졸업을 늦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교내음주금지법안 찬반 논란

음주문화 개선 취지로 마련 ‘축제문화도 없애나’ 반대

보건복지부가 대학 캠퍼스 내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학 내에서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캠퍼스 내에서는 대학 축제 기간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주점’이 금지되고, 학생들이 대낮에 캠퍼스 잔디밭에서 다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는 문화 또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학생들의 반발에

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법안을 발의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내에서는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시설인 만큼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찬성 측 의견과, 대학문화의 낭만과 학생들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고영림(강사)씨는 “원칙적으로 대학 캠퍼스 자체가 음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대학은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인만큼, 따로 실내 음주공간이 마련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대동제만 봐도 술먹자 판인 풍토가 만연해 있는데, 캠퍼스 내 음주가 금지된다면 술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건전한 토론 문화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인인 대학생들 상대로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지상준(경제학과 2)씨는 “대학이 교육 기관인 만큼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자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먹는 것이기에, 도를 넘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매우 드물다”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재우 부총학생회장은 “좋은 취지를 갖고 법안을 낸 것인 만큼 아쉬움은 있으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대학 문화 역시 그에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오렌지스쿨, 교과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오케스트라 활동 등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제주대 오렌지스쿨(대표 허대식 교수)’이 교육과학기술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음악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렌지스쿨은 과목별로 분산돼 있는 특징적 교육 개발 분야를 새로운 융·복합을 통해 신개념 교육프로그램으로 탄생시켜 일선 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미술·체육·음악의 혼합 형태를 다원화된 1과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학교 교육현장에 새로운 교육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는 취지다.

현재 오렌지스쿨은 일선 학교들과 MOU 체결을 통해 강사지원을 하고 있다.

‘오렌지스쿨 오케스트라’는 은성 종합사회복지관과 MOU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엘시스템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창단했다. 오케스트라는 초·중·고교 저소득층 자녀 및 다양한 교육 욕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 강사진 12명, 학생단원 52명이 인성 교육 상담 및 음악 적성도 테스트, 개인 레슨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오렌지스쿨 오케스트라’는 제주대 중심의 세부 교육 과정 및 장기적인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수자와 학생들간의 감성 교감을 상승시킴으로써 학부모듈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렌지스쿨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획은 제주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각 학과별 교수진들의 합동 커뮤니티를 구성해 이뤄짐으로써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오렌지스쿨 측은 제주대 졸업생들이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개념 교육 혁신과 취업률 상승 효과 등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대식 예술학부 교수는 “오렌지스쿨 노하우 전파를 교육 복지 기관, 전국 대학, 학원으로 널리 확대해 향후 수요자와 공급처가 만족하는 제주대 대표 교육과학기술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사일정 일부 변경 두 차례 태풍 영향

2학기 보강수업기간, 기말고사기간, 종강일이 각각 하루씩 늦춰진다.

이는 태풍 볼라벤과 산바가 제주도를 강타해 두 차례 휴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학기 보강수업기간은 당초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에서 7일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종전 12월 7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기말고사기간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로 늦춰진다. 또한 종강은 12월 14일이다.

‘2012년 아라체전’ 자연대학 우승... 준우승은 해양대학



지난 26·27일 대운동장과 체육관, 한라터에서 아라체전이 열렸다. 사진은 개회식 장면.

자연과학대학이 ‘이공일이’ 총학생회(회장 정준호) 주최로 지난달 26·27일 열린 2012년 아라체전에서 종합우승했다.

이번 체전에서는 축구, 족구, 농구, 발야구, 피구, 줄다리기, 승부차기, 씨름, 단체줄넘기, 계주 경기가 대운동

장 및 한라터에서 진행됐다.

정준호 총학생회장은 “교육대학 학생들이 처음으로 아라체전에 참여했다”며 “유학생들도 어울리면서 소통과 화합을 느끼게끔 아라체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회 결과, △종합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

승-해양과학대학 △축구 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승-해양과학대학 △족구 우승-사범대학, 준우승-자연과학대학 △농구 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승-생명자원과학대학 △삼야구 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승-경상대학 △피구 우승-경상대학, 준우승-해양과학대학 △줄다리기 우승-경상대학, 준우승-공과대학 △승부차기 우승-해양과학대학, 준우승-야간강좌부 △씨름 우승-해양과학대학, 준우승-자연과학대학 △단체줄넘기 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승-경상대학, 해양과학대학 △계주 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승-간호대학

김동현 기자

다음 신문은 중간시험 관계로
10월 31일(수)에 발행됩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풍력발전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15명, 박사과정 5명 (특별전형)
모집학과	·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학·연 협동과정 · 본 과정은 출신학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기계, 전기, 전자, 메카, 토목, 해양시스템, 지구해양과학 및 이와 유사학과 출신자 우대
원서접수	· 2012.10.15(월) 10:00 ~ 10.18(목) 17:00 · 본교 입학안내 (http://ibsi.jejunu.ac.kr) · 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면접일정	· 2012.10.30(화) 10:00
특전	· 인건비 월 석사 70만원, 박사 100만원선 지원 · 학회참가비 등 지원 · 성적우수자 해외대학 학점교류 파견 (※ 인건비 지급 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 지원 가능함)
선발방법	· 본 과정은 특별전형으로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 (공인 영어성적 우수자 우대)
문의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754-2045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행정실 754-4400 · 홈페이지 :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http://gwe.jejunu.ac.kr)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주임교수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개교 제60주년과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 유의사항 : A4용지 10-30매 내외(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할 것.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 됨.
- 접수마감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사설

아라체전 휴강일 지정은 잘못

제2학기 학사일정이 변경되었다. 학사과는 당초 12월 3일부터 6일까지였던 보강수업 기간을 7일까지로 하루 연장하고, 기말시험 기간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였던 것을 10일부터 14일까지로 조정했다. 종강일도 13일에서 14일로 하루 늦춰지게 되었다.

보강일이 나흘에서 닷새로 늘어난 것은 추석연휴·개천절과 같은 공휴일때가 대풍과 아라체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풍 불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8월 28일과 9월 17일 휴강한 것은 천재지변이었으므로 불가피했다. 휴강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기에 잘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학교당국에서 아라체전 개막일(9월 26일)을 휴강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라체전이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중요한 행사의 하나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총장의 공문에 의한 공식적인 휴강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아라체전은 단과대학 대표학생들이 벌이는 시합이다. 단과대학 대표선수는 지극히 한정적인 수의 학생일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 학생들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게다가 학교와는 달리 단과대학의 소속감은 느슨한 것이어서 응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학교 당국에서는 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학생이나 학생회 관계자 정도를 공결 처리하는 선에서만 협조하면 될 일이었다.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관심 있으면 공강시간 등을 이용해서 응원을 하도록 했으면 충분한 것이었다.

한편 생각해 보자. 과연 1만 명의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 아라체전에 참가했을까? 500여 교수들 중에 운동장에 잠시라도 들러본 이는 몇 명이나 될까? 어느 단과대학이 우승했는지, 축구 성적은 어땠는지 등을 아는 대학인은 얼마나 될까?

안 그래도 2학기는 공휴일이 많은 데다 단과대학이나 학과 축제 등의 행사로 비공식적인 수업결손이 많아서 교수들이 보강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뜻하지 않게 연이어 불어온 태풍으로 이틀이나 휴강을 하게 되어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던 터였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학교당국에서 아라체전을 한다고 공식적인 휴강일을 지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일부 교수들은 학교당국의 휴강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강행했다. 공식적인 보강일만으로는 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총장 명의의 공문이 무시된 셈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혼란이 적지 않았다. 왜 휴강일로 지정해 놓고서 강의를 하냐고 불만도 많았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풍으로 휴강하는 상황이 있긴 없긴 관계없이, 앞으로는 아라체전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휴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휴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라체전을 치를 수 있다. 학생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학교당국이 꼭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휴강이 잦은 가운데서 면학분위기를 제대로 조성할 수는 없다. '2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매진하려면 면학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일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김동운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수의과대학 신축건물 기공식 26일 거행

현장서 인문대 교수들은 항의 피켓시위 “협기사항 안지킨데다 절차 무시 강행”

지난달 26일 수의과대학 건물 신축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인문대학 교수들이 이날 기공식에서 잘못된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인문대학 2호관 남쪽 수의과대학 신축 부지에서 허항진 총장, 안만찬 기성회장, 이두식 수의과대학 학장, 수의과대학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과대학 신축 건물 부지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 인문대학 교수들이 기공식 행사장 부근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기공식 분위기는 냉랭했다.

허항진 총장은 “수의과대학 건물 신축 문제로 인문대학 구성원과 마찰을 빚게 되어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식(수의학과) 학장은 축사를 통해 “수의과대학의 단독건물이 없어 학생들이 여기저기 전전하다보니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의 건물 신축을 계기로 수의대가 앞으로 더욱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문대학 교수들은 수의과대학 신축과 관련한 대학 본부의 행정적 절차 오류에 대해 비판했다. 모 교수는 “신축 부지에 수의과대학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인문대학, 수의과대학, 대학 본부가 협의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지 기자



지난달 26일 수의과대학 건물 신축 부지에서 기공식이 열렸다(사진 위). 이날 기공식 행사장 옆에서 인문대학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제33회 영어말하기 대회, 대상에 양건철씨

김은지<영문 3>·허문준<영문 1>씨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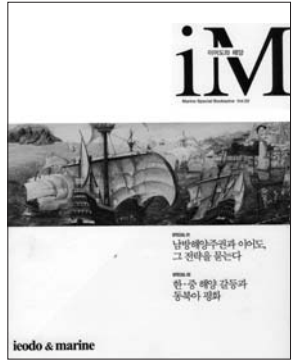
언론미디어센터(주간 김동운) 영자신문이 주최하는 제33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지난달 28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양건철(경제학과 4)씨가 대상을, 김은지(영어영문학

과 3), 허문준(영어영문학과 1)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장려상에는 김용현(관광경영학과 4), 팽영(무역학과 2), 김영호(영어교육과 1)씨가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50만원, 우수상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25만원, 장려상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총 5개의 발표 주제를 경연 시작 60분 전에 무작위 선택하고, 4분 이내 영어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김원보(통역대학원) 교수와 예술리 미카 브래디(영어교육과) 초빙교수가 맡았다.



『이어도와 해양 iM』 이어도연구회서 발간

(사)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 행정학과 교수)에서 북매거진 『이어도와 해양 iM』 2호를 내놨다.

이번 호에는 주강현(탐라문화연구원 석좌교수)씨가 편집주간으로 참여했다. 이번 호에는 '남방해양주권과 이어도, 그 전략을 묻는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남방해양주권과 이어도, 그 전략을 묻는다'에서는 오거돈(전 해양대 총장)전 해수부 장관, 홍승용 전 차관 등과 함께 대답한 내용을 담았다.

사람들

송석준 교수

수학회 논문상 수상

송석준 교수(수학과)가 '2012 대수학회 상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송 교수가 강경태 박사(제주대 수학과 강사), 미국 유타주립대 로이 비슬리 교수와 함께 참여한 'Idempotent matrix preservers over Boolean algebras (불대수 상의 재귀행렬의 보존자)'라는 논문이다.

심희정 교수

체코 연주행사에 초청

심희정(음악학부 피아노 전공) 교수가 오는 10월 6일 체코 프라하에 있는 스메타나 홀에서 '복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으로 연주행사를 갖는다.

연주곡은 생상 피아노 협주곡 제2번 g단조 Op.22 (C. Saint-saens : Piano Concerto No.2 in g minor, Op.22).

허성표 연구원

학문후속세대 선정

허성표(해양과 환경연구소) 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GPS(Global Ph.D Scholar-ship)형으로 연간 1억5000만원씩 5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뉴스 클리핑

박물관, 만능 선생 사진전 8일부터 개최
'기록, 만능이 바라본 섬 제주' 연말까지

제주대, 전국체전선수단 결단식
5개 종목 34명 참가

박물관(관장 김동진)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층 중앙홀에서 '기록, 만능이 바라본 섬 제주'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제주의 교육, 민속, 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만능 홍정표 선생이 평생 제주와 제주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60여 점을 선별해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 사진들은 1993년 만능 선생의 유족들이 제주대 박물관에 기증한 3000여 컷의 원판 필름을 분류해 정리하고, 디지털화는 작업을 마친 후 선별한 것이다. 전시는 제주의 바다와 땅, 제주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 등 4개의 주제로 이뤄졌다. 아울러 사진 속에 등장하는 제주 고유의 민속 유물과 만능 선생이 생전에 사용했던 유품들도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만능 선생의 사진 속에는 1950~1960년대 제주의 자연, 풍속, 삶과 문화 등 제주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 사람들의 삶의 자취가 담겨 있다.

한편 특별전 개막식날에는 오후 2시부터 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만능 선생의 삶과 사진세계'라는 주제로 서재철 제주도박물관협의회 회장(자연사랑관장)의 특별강연이 열린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기증받은 3000여 장의 사진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해 만능 홍정표 선생 사진집으로 집대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대는 지난 4일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결단식 행사를 가졌다.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대구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제주대는 △육상 13명 △수영 10명 △태권도 5명 △볼링 2명 △검도 4명 등 총 5개부에서 34명의 선수 참가한다.

'생물권보전지역 10주년 기념'

제주조릿대 시음행사 개최

허항진 총장은 "정경당당한 경쟁을 통해 제주도와 대학의 명예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조릿대 RIS 사업단(단장 김세제 교수)은 지난 6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에서 제품 전시 및 시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제주조릿대 공동브랜드 웰스넷 홍보 △조릿대 제품 전시 △조릿대의 다양한 기능성 홍보 △조릿대 먹거리, 소시지, 쿠키, 차 등 시음 및 시식 등이 있었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TOEIC도 이제...
외교원

새롭게 단장한 토익특별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1 최고의 토익전문 강사진

02 사설학원 대비 훨씬 저렴한 수강료

03 최신 TOEIC시장에 발 맞춘 신경향 수업

04 내 스케줄에 딱 맞춰서 들을 수 있는 수업시간

05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접수기간 : 8월 24일 ~ 9월 26일(9월 24일 개강)

접수방법 :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li.jejunu.ac.kr)

문의 : 외국어교육원 2층 토익특별반 (064-751-2291, 754-2347)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외국어교육원 토익특별반
Foreign Language Institute

☎(064)754-2347, 751-2291, http://li.jejunu.ac.kr

교수신문

세계적 이슈가 된 강정해군기지



윤웅택
철학과 교수

“

강정해군기지는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갈등과

분쟁의 핵이 될 것…

국민이 막지 못한다면

세계인이 막을 것이고,

인간이 막지 못하면

자연이 막을 것이다

”

돌하르방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의 위력



김소영 문화기획부장

전세계적으로 가수 싸이의 열풍이 대단하다.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던 것이 었고세 같은데, 이제는 자그만치 43개국의 음악 차트까지도 보란 듯이 점령하고 있다. 새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따라하는 광경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쩡한 기분을 자아내게도 한다. 지극히 동양인스러운 외모의 가수가 다른 아닌 한국어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 당당히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데는, 세계를 무대로 임하는 싸이의 태도를 언급하고 싶어서이다. 필자가 무엇보다 그를 통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은, 어떤 상황에도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

거니와, 생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싸이는 자신과 다른 모습을 한 수많은 타인들 앞에서 결코 기죽거나 소심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앞에서 우악스런 말춤을 추며, 시종일관 뻔뻔하게 노래를 불렀다. 본인이 자신해서 정식으로 미국에 진출한 것도 아닌, 갑작스레 생겨난 엄청난 열풍에 맞물려 ‘어쩌다’ 미국 진출을 당하게 된 것인데도, 낮은 반응과 또 낮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 같은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그가 미국에서 한 공연을 보며 탄성을 내뿔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중심에, 선글라스를 낀 동양인 남자가 육중한 몸집을 사정없이 움직이며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서 왜인지 모르게 느껴졌던 아우라는 다른 게 아니었다. 평소 그가 지니고 있는 ‘당당함’의 결과였다.

사실 필자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금만 남이 안 좋은 시선을 보내와도 금방 얼굴을 붉히고 급격히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것을 성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 고치려는 시도도 못한 채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다. 조그만 일에조차도 소심해 대범해야 될 일에는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때마에 당당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 당당함을 지니고 있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당당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둘러싼 당당함은 타인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데 있어 외양 못지않게 자신을 어필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당당하다. 사실 그 당당함 위에는 그에 필적하는 식견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알맹이보다 때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 자세 또한 필요한 법이다. 그냥 무작정, 되는 대로 밀고 나가면서도 눈빛은 뻔뻔하게, 어느 것에도 끌리지 않으려는 자신감과 오기로 스스로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는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상정하였다. 총회 마지막 날 발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89표, 반대 188표, 기권 188표로 발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총회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찬성 20표, 반대 68표, 기권 60표로 반대가 많아 발의안은 부결되었다.

이제 강정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강정해군기지문제가 불거진 지 5년 반이 지났다. 강정해군기지는 2011년 총선을 계기로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고, WCC를 통해 세계적 이슈로 확대되었다.

최근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강정해군기지가 미국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예의주시하는 중국이 그냥 보고 있을 리 만무하고, 그리되면 강정해군기지는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갈등과 분쟁의 핵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올해 연거푸 불어닥치는 태풍으로 바람코지(串)인 강정해안은 해군기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난 8월 말 제주를 강타한 불라벤 영향으로 강정해안에 투하된 해군기지 방파제의 빠대인 케이스(1개가 아파트 8층 높이에 무게만 8885톤, 가격은 15억여원이 된다) 7개가 모두 파손되었다. 그로 인한 국고낭비와 환경파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데도 공사업체에서는 강정마을에서 케이스를 직접 제작하기 위한 훔글스런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평화, 종교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때 외부세력이 개입한다고 비난하였고, 환경단체들이 WCC에서 강정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촉구하자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는 이제 강정마을과 제주도의 문제를 넘어섰다. 강정해군기지를 우리 국민이 막지 못한다면 세계인이 막을 것이고, 인간이 막지 못하면 자연이 막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게에 그 이전에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

인터뷰 송석언 제6대 교수회장

“교수·학생·직원 협력해 장기사업 구상”

-당선소감.

“교수회장에 당선돼 기쁘다. 같이 출마했던 교수님들도 저 못지않게 잘하셨을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교수회장직을 맡아보셨으니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당선시켜주신 것 같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대학의 3주체인 학생, 교원, 직원이 상호협력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장기적인 사업을 해보고 싶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선의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차선으로 만들어야할 수도 있다. 신중하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학내에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해보고 싶다. 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일 것이다. 학교에서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까 언급했던 대학 3주체가 공동사업 등을 같이 힘써 한번 바꿔보고 싶다.

교수님이 많은 학과에는 학과 교수, 제자 등이 서로 모르고 학생들이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 또 수업을 듣더라도 교수가 자기가 모를 것이라고 판단해 인사를 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어찌 보면 학생과 교수간의 유대가 부족한 것이다. 공동 사업, 캠페인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해 있는 대학의 교수와 제자 간에 서로 알고 인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싶다. 그 외에도 애교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운동도 해보고 싶다.”

-대학 구성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풀겠다고 공약했다. 보이지 않는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풀 것인가.

“예를 들어 지난번 제주대신문 독자기고로 실린 ‘학생복지와 본관 3층으로 이전해 이용 불편’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이 불편하다는 목소리에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대학본부에 대한 불만이다.

학생이 있기에 선생이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학생이 우선이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있고 캠퍼스가 있다. 반드시 시위가 있어야 갈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불만의 목소리, 이것이 광장히 구성원들을 피곤하게 한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풀 수 있는 갈등을 그대로 뒀선 안 된다. 물론 교수와 학생 간, 교수와 직원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수회가 교수들의 권익옹호에만 앞장선다는 시각도 있다.

“대학의 문턱에 있어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이 대등한 자리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수회가 아직도 교수들의 권익옹호에만 앞장선다는 시각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교수회는 교수들의 권익옹호에만 앞장서는 교수 노동조합이 아니다. 대학이 있기 때문에 교수회가 있는 것이다.

독자기고

제2도서관 화장실 시설 확충해야



김현주
회계학과 2

열람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에만 비교했을 때, 제2도서관의 수용가능 인원수는 중앙도서관의 수용가능 인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데 비하여, 각 두 개의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

중앙도서관의 화장실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복도 너비 폭이 넓을 뿐만이 아니라, 세면대·입구·창문 앞의 공간이 넓다.) 제2도서관은 일직선 형태의 복도와 그리고 그 복도 바로 앞에 화장실 칸들이 폭 나열된 구조이어서, 사람들이 두 명이상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화장실이 급세 비좁게 느껴진다.

또한 문구와 세면대가 동일한 일직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잠시 보거나 손을 문 옆인 바깥쪽의 세면대에서 씻고 있을 때 잘못하다가는 밖에서 열리는 문에 맞을 수도 있다. 화장실 칸들 앞의 복도 너비가 좁고 세면대 앞의 공간 또한 좁아서 공간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학생, 교수, 직원은 대학을 받치는 세 가지 명제이다. 세 기둥이 견고해야 대학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대학에 외풍이 많다. 이 외풍에 맞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회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그러한 지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대학에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계속 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원대, 광주교대 등의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선 안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나를 잘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강원대, 광주교대는 시일에 쫓겨서 진행됐다.

우리 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를 지금 당장 확정지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총장 선거가 내년 말이기 문에 당장 마련할 필요는 없다. 진행되고 있긴 하나 시간을 갖고 선행된 제도를 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 우리 대학에 적합한 복수의 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이들 방안을 투표 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합의하려고 하고 있다.”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총장은 학사행정의 집권권을 가지고 있다. 학내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 편성예산에 대한 통과 등을 평의회에서 담당한다. 전과는 다르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또 결산이 미흡한 상황이다. 사실상 결산 심사는 안하는 상황이다. 원래는 해야 한다. 편성과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空)의 공약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을 하도록 하겠다.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공약도 지적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들에게 한마디.

“교수회가 교수들의 권익옹호에만 힘쓰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교수, 학생, 직원 대학의 3주체가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

김명지 기자

‘사범대 독후감 콘테스트’ 수상작 -마크 키쇼너외 지음 『생명의 패연성』을 읽고

다윈의 ‘진화론’이 내포한 딜레마를 풀다



전가람
생물교육전공 3

장이지만 다윈이 제시한 진화이론의 위대함을 익히 알고 있다. 다윈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생물학 분야, 특히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탄력을 받아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기에 창조론을 주장하는 지적설계론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다윈의 진화이론이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바로 작은 유전자 변이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우리의 눈, 코, 입, 귀 등 놀랄만한 혁신물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축진된 변이’ 이론이라 칭하는데 참으로 도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론이 아닌가 싶다. 돌연변이는 유전체가 지닌 특성에 따라 축진되며 이의 진화 능력과 진화가 취하는 방향에는 경향성이 있다는 주장 자체가 결국 진화는 계획된 것이라는 걸까? 나는 두가지 사실에 주목해보려 한다.

첫째, 계획적으로 설계된 생명은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어필하듯이 개연성이라는 용어가 흔히 나온다. 페일리 목사가 황야를 헤매다

우연히 청동시계를 발견한 일화를 소개하며 생명의 복잡성의 기원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라 한다. 창조론을 대변하는 대목인 듯 싶다.

이에 반해 유전학, 세포발생학, 발생생물학 등을 이수한 한 여학생이 21세기 후손을 내세운다. 종교적 입장을 배제하고 지극히 과학적 입장을 대변한다. 비록 진화론이 유기체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아주 오랜 기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때문에 설득력을 잃는다하더라도 생명체의 기원을 신이 아닌 자연 자체로 본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도이지 않은가.

둘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화론의 창조력을 설명하는 두 저자의 ‘축진된 변이’ 이론이다. 말 그대로 다윈의 진화론이 내포하고 있던 딜레마를 풀 것이다. 진화론의 가장 큰 뒷받침은 변이와 자연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무작위적인 변이로 인해 자연선택이 작동한다는 것은 알아냈지만 이러한 변이를 완벽하게 풀어나가지 못해 미래에 과학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었다. 다양한 종들간의 유사성은 유전자의 유사성에서 비롯되었고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유전자가 비슷함에도 표현형의 차이 즉, 해부학적 구조나 생리적 기능, 발생학적 구조의 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자들은 세포의 기본 메커니즘은 보존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이 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제한된 구성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돌연변이의 표현형을 세운것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인상깊었던 것은 단백질 합성이나 세포골격기능, 세포외기질의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몇 억 년 혹은 수십 억년의 진화과정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틀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는 곧

새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표현형 생성에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은 약한 조절 연결, 탐색 행동, 귀화화라는 것들이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형 변이에 반응하여 표현형 변이를 생성하는 유기체의 창조적인 능력도 관심있게 읽은 부분이었다. 유기체를 변이의 성격과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로 간주하고 자연선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풍부한 변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기체는 유전자 변이로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형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고 언제든 변이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미 보존되어 있는 기본 메커니즘들을 중축으로 변이를 주endo하고, 유전자 변이나 돌연변이는 굳이 새로 생길 필요없이 기본 메커니즘속에서 새로운, 즉 창조성을 촉진하기만 된다. 이로써 ‘축진된 변이’ 이론이 완성된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의문을 가져보며 즐거움과 해답을 얻게되는 성취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이미 여러 전공들을 이수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숙지했을거라 자만했던 나에게 생물학의 방대함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다윈의 진화론 자체가 흥미롭고 사유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부족했던 2%를 채울 수 있었다. 더불어 여러 사례들과 객관적인 연구 결과물을 통해 지적설계론에 대한 과학적 반증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보존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다양성을 촉진하고 생명의 방대함이 밀천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진화 본질의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이 책의 기본 모토가 훗날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보며 이를 깊이 새겨야겠다.

제주대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으로는 ‘중앙도서관’과 ‘제2도서관’이 있다. 중앙도서관에는 제1열람실과 제2열람실 등 2개의 열람실이 있고, 제2도서관에는 제3열람실부터 제6열람실까지 총 4개의 열람실이 있다.

열람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에만 비교했을 때, 제2도서관의 수용가능 인원수는 중앙도서관의 수용가능 인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데 비하여, 각 두 개의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

중앙도서관의 화장실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복도 너비 폭이 넓을 뿐만이 아니라, 세면대·입구·창문 앞의 공간이 넓다.) 제2도서관은 일직선 형태의 복도와 그리고 그 복도 바로 앞에 화장실 칸들이 폭 나열된 구조이어서, 사람들이 두 명이상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화장실이 급세 비좁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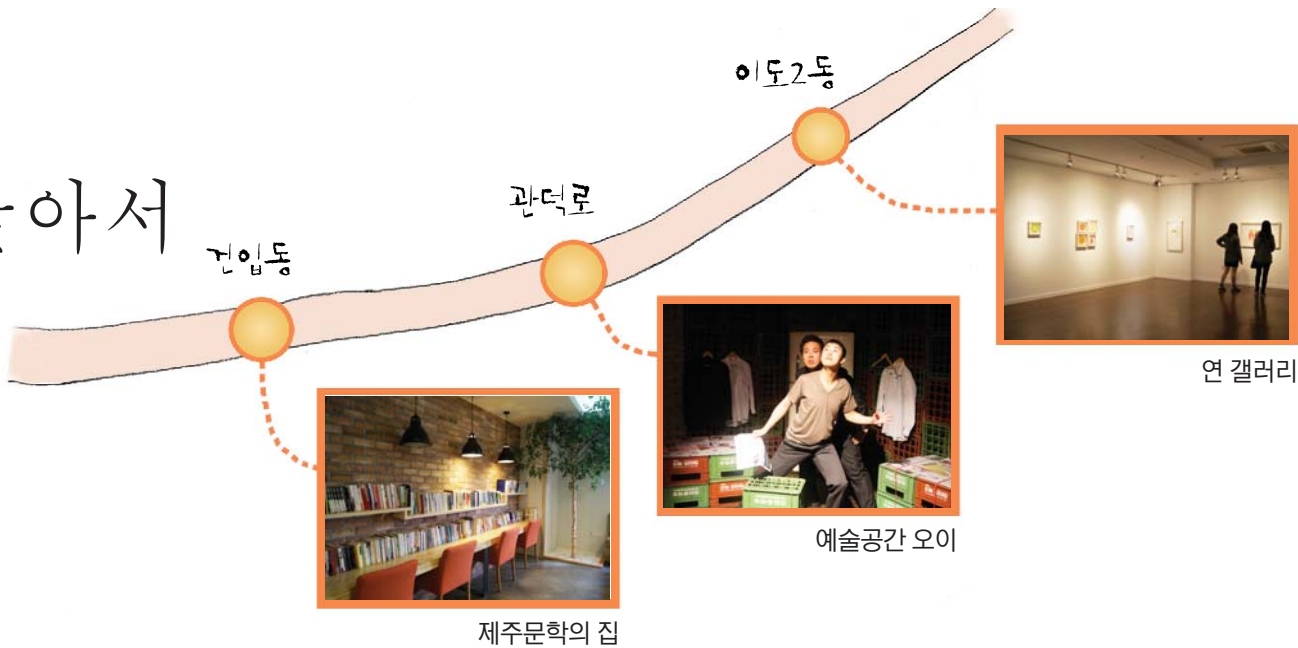
또한 문구와 세면대가 동일한 일직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잠시 보거나 손을 문 옆인 바깥쪽의 세면대에서 씻고 있을 때 잘못하다가는 밖에서 열리는 문에 맞을 수도 있다. 화장실 칸들 앞의 복도 너비가 좁고 세면대 앞의 공간 또한 좁아서 공간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가을맞이 제주 탐방

숨은 문화공간을 찾아서

서늘해진 날씨, 높고 새파란 하늘. 가을이란 계절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감성에 젖게 만든다. 감성에 젖은 당신, 문화를 즐기기에 제주도가 너무 좋다고 탓하지 말라. 감춰진 문화공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두운 등잔 밑을 밝혀보는 건 어떤가?



이색 전시공간 가을화단 매혹

하나 연 갤러리

갤러리, 이름만 들어도 버겁다. 가까이 다가가면 높은 문턱이 자신을 가로막을 것만 같다. 여기 보는 갤러리가 아닌 참여할 수 있는 갤러리, 살아 있는 갤러리가 있다.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연 갤러리다. “많은 분들이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연 갤러리 송정은(44) 실장의 말이다. 연 갤러리의 작품은 다양하다. 헤어, 사진, 갈옷, 공예 등이 그 종류다. 다양한 만큼 방문하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또한 다양하다. 아빠들도 많이 참여하는 미술교육프로그램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오기도 한다. “한번은 철보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외국인들이 오셨더라고요. 철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즐겁게 체험하고 가셨어요.” 연 갤러리는 작품의 선정기준이 따로 없다. 작가의 이력도 필요치 않다. “강명순 관장님이 서양화가예요. 작가를 시작할 때, 제주도에 전시기관이 없다는 걸



송정은(44) 실장.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전시를 하려면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진작가·청년작가들의 전시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쉬움 때문일까? 강명순씨는 건물을 지을 때 이같이 그들의 전시공간이 떠올라 갤러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연 갤러리는 매주 새로운 전시로 새로운 갤러리를 만들어 나간다. 매주 월요일에 가면 작가도 직접 만날 수 있다. “연 갤러리에 오면 좋은 작품과 함께 좋은 음악도 감상할 수 있어요. 오면 음료수 드리카나 데이트 코스로 한번 와보시는 건 어때세요?”

둘 제주문학의 집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독서’다. ‘도서관처럼 너무 답답하지 않고, 친구랑 자유롭게 얘기하며 책 읽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북카페 ‘제주문학의 집’은 이런 바람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요즘 사회는 문학 향수증이 넓지 않아요.” 제주문학의 집 이종형(57)사무국장은 말한다. 시인인 그는 “SNS의 발달로 인해 종이책을 읽는 시간이 줄고 있다”며 책을 읽지 않는 현재의 사회적 풍토를 꼬집었다. 제주문학의 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학관 건립의 전 단계로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독자들과의 만남,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북카페를 설립하게 됐지요.” 또한 그는 전국적으로 어떤 형태론든 문학관이 있는데, 제주도만 없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며, 문학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너무 관광지로서만 부각되는 것



이종형(57) 사무국장.

이 아쉬워요. 문화적 인프라에 비례해 문학적 인프라도 받쳐줘야 합니다. 문학관이 하루빨리 지어지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지요. 예산과 장소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언제 지어질지 예정조차 없어 걱정이 큼니다.” 이곳 북카페에는 시·소설·수필·아동문학 등 여러 종류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책을 읽으며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휴관이며 오후 1시부터 9시까지의 항상 열려 있다. 보통 카페보다 값싼 커피가 있고 커피를 내려주는 미중년의 신사가 있다.

셋 예술공간 오이

꿈, 쉽게 말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술공간 오이, 그곳은 작지만 연극인들의 꿈으로 가득차 있었다. 장차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무대공연은 관객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면서 예술을 한다는 점이 다른 예술들과 다르죠. 아무리 영상과 사진으로 남겼다 한들 연극이 끝나면 다 사라져 버려요. 멋지지 않아요?” 예술공간 오이의 연출가 오상운(38)씨의 말이다. 술자리에서 공연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오상운씨의 뜻에 흔쾌히 동의한 오현수(32·기획팀장)씨가 함께 설립한 예술공간 오이. 오이는 두 사람 모두 오씨인데 본관이 다르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모음으로만 구성된 것이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 오이의 두 번째 연극 담뱃머리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각색한 것으로 인간의 부조리함을 나타낸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오현수(32·작) 기획팀장, 전혁준(28·우) 행정팀장.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있는 것일까?”라는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요즘은 관객을 많이 끌기 위해 코믹연극을 많이 하는데, 문화예술은 탐구하는 것입니다. 재미는 떨어지더라도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연극을 준비했어요.”라고 전혁준(28·행정팀장)씨가 말했다. 아직 문화·예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없다. 연극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영상 그리고 작가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더 큰 꿈을 위해 그들은 오늘도 열정의 땀방울을 흘린다. 윤신혜 기자

네 안의 열정을 깨워라!

기간 2012년 8월 28일 ▶ 11월 27일
홈페이지_ www.jeju.ac.kr
페이스북_ facebook.com/JDCAcademy
블로그_ blog.naver.com/JDCAcademy
문의_ 064) 754-2307(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8월 28일	국제교류회원	9월 4일	국제교류회원	9월 11일	국제교류회원	9월 18일	국제교류회원	9월 25일	국제교류회원	10월 2일	국제교류회원
양원환	김정현	김수영	한동현	고 산	김종현	10월 9일	국제교류회원	10월 23일	국제교류회원	10월 30일	국제교류회원
제주도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명수	최일규	김남훈	이근철	김수종	엄용훈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우리들의 네모상자

가을에는 [] 를 하고 싶어요

취재·정리=최희은 기자

가을에는 추억을 쌓고 싶어요

낭만의 계절 가을에 서로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다. 함께 한라산을 오르며 가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단풍 구경도 하고 싶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 여행도 떠나고 싶다.

오성욱(국어국문학과 1·좌)씨, 고유라(일어일문학과 1·우)씨.

가을에는 독서를 하고 싶어요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나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대학생이 된 이후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해 왔는데, 최근 도서관과 서점에 가보니 흥미로운 책들이 가득했다. 가을, 독서의 계절인 만큼 마음껏 책을 읽어보고 싶다.

권소라(영어영문학과 1)씨.

가을에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여행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여행을 간다면 오랜만에 가도 낯설지 않고 포근해, 나의 지난날들을 회상하기 좋은 나의 고향 경상도 석포로 가고 싶다.

최근배(초등수학교육과) 교수.

가을에는 멋진 근육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 가을에는 살을 빼고 멋진 근육을 만들고 싶다. 여름에 도전해 봤지만 너무 더워 조금만 움직여도 지쳤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었다.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 가을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동환(원예환경전공 2)씨.

가을에는 트레킹을 하고 싶어요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붉게 물든 단풍. 중간고사가 끝나면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산길을 걸어나며 알록달록 물든 색색의 단풍들도 구경하고, 맑은 공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임소영(무역학과 1)씨.

가을에는 절약하는 습관을 갖고 싶어요

이번 가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돈을 아껴쓰는 것이다. 여름방학 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쓸데없는 데 많이 허비했던 것 같다. 이번 가을에는 열심히 돈을 모아, 겨울방학 때는 좀 더 의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유동희(경영정보학과 1)씨.